특허종합소식지 특허는 재산 · 기술은 힘 · 정보는 생명

06.2003 / No.48

Patent 21

www.kipi.or.kr

특집

OECD의 과학기술관련 조직과 활동

OECD의 통계지표와 DATABASE 현황

OECD의 지식재산권 활동

기획

PIUG 2003 Annual Conference 참가 결과 보고서

특허청 NEWS

KIPI NEWS

KIPI 게시판

한국특허정보원
Korea Institute of Patent Information

CONTENTS

특집

1. OECD의 과학기술관련 조직과 활동 ······· 3
2. OECD의 통계지표와 DATABASE 현황 ······· 6
3. OECD의 지식재산권 활동 ······· 10

기획

PIUG 2003 Annual Conference 참가 결과 보고서 ······· 13

특허청 NEWS

제38회 발명의 날 기념식 개최 ······· 16
「특허청 공무원 행동강령」 5월 19일부터 실시 ······· 18
특허심판원 개원5주년 기념세미나 개최 외 ······· 19
Mr. Kamil Idris, WIPO 사무총장으로 재선출 ······· 21

KIPI NEWS

노대통령, KIPRIS 통해 본인의 29년전 실용신안 검색 ······· 22
온라인 특허강의 안내 ······· 23
KIPRIS 이용약관 개정안내 ······· 24
발명의 달 기념 틀린그림찾기 이벤트 당첨자 발표 ······· 26

KIPI 게시판

도메인 분쟁시 상표출원자에게 유리 외 ······· 28
한국특허정보원 이전 안내 ······· 32

OECD의 지식재산권 관련 조직 및 활동현황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개발협력기구)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발전 그리고 세계무역 촉진을 위하여 발족한 국제기구이다. 이번호에서는 OECD의 과학기술관련 조직과 지식재산권 활동, 통계지표 및 Database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註)

OECD의 과학기술관련 조직과 활동

조사분석4팀 이 일 규

들어가며....

현재 미국을 비롯한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특허정보 분석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활동의 목적은 현재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우위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유용한 특허정보 분석을 통하여 과학기술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21세기 "지식기반경제" 시대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있다고 여겨진다.

OECD는 특허정보의 통계적 특징을 국가 정책과 기업 경영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적인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허 통계데이터를 과학기술 지표로 사용하는 가이드라인인 Patent Manual(1994)을 발행하였다.

국제특허분류(IPC)와 국제표준산업분류(ISIC)를 일치시켜 특허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도움을 주는 OTC 자료를 2002년에 발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OECD는 국가의 과학기술활동을 측정 및 반영함과 동시에 그 장단점을 나타내고, 국가의 요구에 적합하지 않은 실태나 동향에 대해 경고를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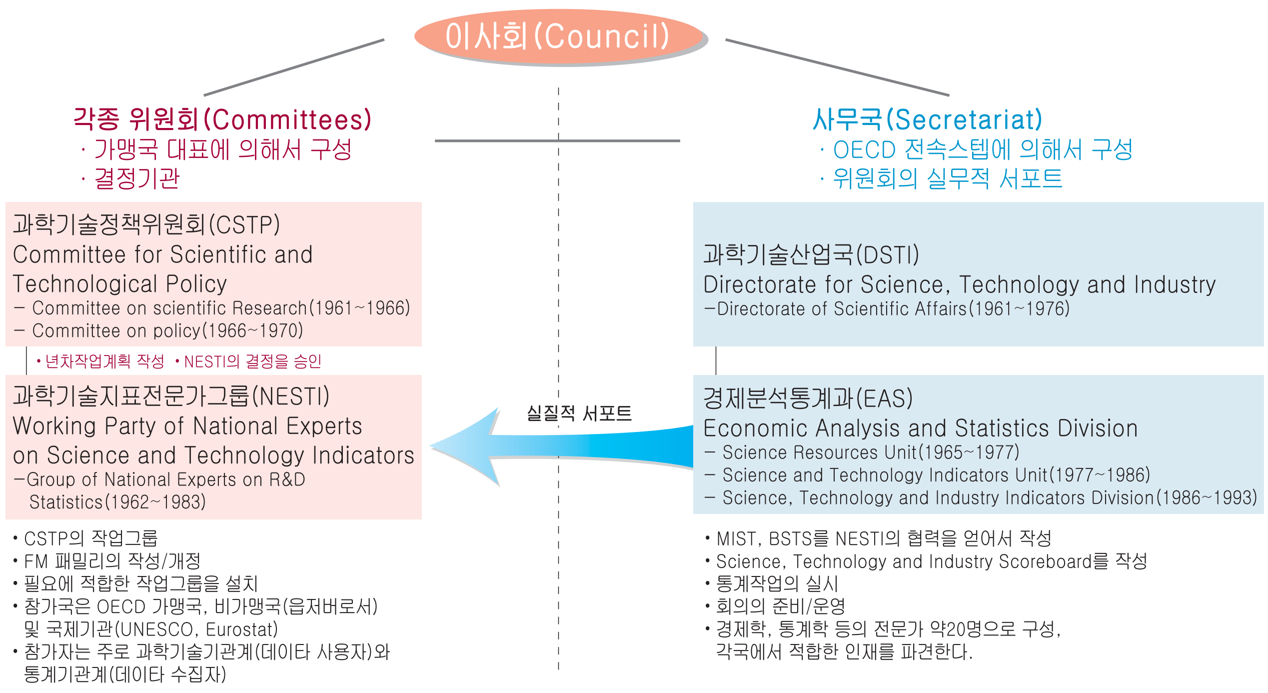
본 보고서에서는 OECD의 과학기술관련 조직과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의 하부조직인 과학기술지표전문가그룹(NESTI)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OECD의 조직구성

OECD의 조직은 크게 가맹국대표에 의해 이사회 · 위원회와 사무국 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최고의결기관으로 회원국 대표들로 구성되는 이사회가 전원합의제로 운영되고, 각료이사회와 상주대표이사회가 있다. 행정기술적 사항을 심의하는 집행위원회와 예산위원회 · 특별집행위원회가 있으며, 이사회의 특수정책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보좌기구로서 별도 위원회와 자문기구들이 있다.

사업집행기구로서 23개 위원회가 있으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약 140개의 사업별 작업반을 설치 ·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각 이사회의 사업을 행정적 ·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하부기구로 사무국이 있으며, 사무총장 1인과 14개국을 두고 있다.



자료 : Godin, B.'Taking Demand Seriously:The OECD and the Role of Users in S&T Statistics'(2001) OECD 홈 페이지.

표1. OECD의 조직도

<표1>OECD의 조직도를 보면 각종 위원회는 가맹국의 대표에 의해서 구성되어 년차작업계획을 작성하고, 하부조직의 설립, 해산의 권한을 가진다.

많은 위원회중의 하나인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는 경제 · 사회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과학 · 기술 · 이노베이션에 있어서 가맹국간의 제휴를 촉진하고, 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활동한다. 하부조직으로는 통계작업의 감사, 어드바이스등을 행하는 과학기술지표전문가그룹(NESTI)이 설치되어 있고, 지표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학기술활동측정용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다.

위원회의 실질적 서포트를 공급하는 과학기술산업국(DSTI)에 속한 경제분석통계과(EAS)에서는 지표집과 지표 보고서를 작성한다.

위원회에 있는 하부조직의 변경이 적절히 행하여지는 OECD에 있어서, NESTI는 한번의 명칭변경이 있었던 62년 이후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오랜시간동안 NESTI의 수요가 증가하는것과 함께, NESTI가 수행해온 역할의 중요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 NESTI Group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의 과학기술지표전문가 그룹(National Experts o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 NESTI)은 본래 1962년에 Frascati manual 작업을 마무리하고, 처음으로 R&D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NESTI는 과학기술활동 조사와 과학기술지표의 개발과 활용을 위한 전문가 그룹으로 현재 이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주요활동으로는 첫째, 국제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통계지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회원국의 과학기술통계를 수집하며, 수집된 통계를 분석하여 국제 비교한 정기 간행물을 발간한다. 연구개발세제의 감면, 정부의 산업 연구 개발 지원, 과학기술정책 결정자의 우선 순위 선정을 지원하는 지표 개발 등 정책조정 관련지표를 포함한 지식기반 경제의 과학기술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술혁신과 성장 속도, 유연성, 정보통신기술경제 성장의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둘째, R&D, 기술혁신, 대학과 산업간 연계(특허와 인력 이동), 정보통신 기술 신지표, 생명공학, 보건 R&D, 벤처 캐피탈, 비체화기술의 측정(인적 자본, 무형적 자산), R&D의 세계화, 지식 지표(기술 무역, 체계화된 연구개발비 및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 첨단 기술 제품의 무역수지)등을 포함하는 과학기술 지표 개발로 그 활동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NESTI의 주요연구로는 기술혁신/산출조사의 개선, 서비스 혁신, 생명공학 R&D와 보건 R&D 및 환경 R&D 통계지표 개발, 인적자원, 특허지표, R&D의 세계화, R&D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공공 부문과 산업간의 연계, 정보통신 기술의 경제 기여도, 품질경쟁 및 첨단 기술 제품 확산 등이 있다.

그 주요연구 중에서 특허지표를 살펴보면, 그 목적은 특허기반을 둔 지식의 유통과 발명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다. 즉 학계에서 개발된 방법으로 편향되어 추산된 여러 특허 통계를 바로 잡고 보다 많은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다. 1500만 건의 특허 데이터 베이스와 유럽 특허청(EPO), 미국, 캐나다, 일본 특허청의 특허 수수료에 관한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다. 특허의 인용회수 평가, 국제 특허출원 절차(국제특허협약(PCT))가 특허 통계에 미치는 영향 평가, 기업의 혁신적이고 통합능력을 측정하는 방법론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 결과에 따라 특허 지침서의 수정 여부도 검토될 것이다.

NESTI는 과학기술 활동의 측정에 관한 OECD 지침서를 발간 · 보완하고 있는데 주요 매뉴얼의 목록은 <표2>와 같다.

데이터 유형	제 목
연구개발	– Proposed Standard Practice for Surveys of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Frascati Manual, 1993) – Main Definitions and Conventions for the Measurement of Research and Experimenta Development (R&D)(A Summary of the Frascati Manual, 1993)
기술무역수지	Proposed Standard Method of Compiling and Interpreting Technology Balance of Payments Data (TBP Manual, 1990)
기술혁신	OECD Proposed Guidelines for Collecting and Interpreting Technological Innovation Data (Olso MANUAL, 1992)
특 허	Using Patent Data as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Patent Manual, 1994)
인적자원	The Measurement of Human Resources Devoted to S&T (Canberra Manual, 1995)

표2. OECD 메뉴얼

지표관련 출판물로는 Data만 기재되어 있는 형식의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와 Basic Science and Technology Statistics가 있으며, Data에 상세한 설명과 분석을 추가한 지표보고서 형식의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REPORT(1984~1989),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Outlook과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1995~)가 있다.

출판물 중에서 과학기술산업 지표 요람(STI Scoreboard of Indicators)은 OECD 회원국의 최근 관련자료를 종합, 정리하여 지식기반경제의 메카니즘, 추세 등을 파악하고, 경제, 과학기술, 기술혁신 관련 통계의 종합 및 분석을 하는 보고서이다.

2001. 9. 20일에 발간된 STI Scoreboard 2001의 보고서에 있어서, 보고서의 특징을 보면, 첫째, 정책적 의미가 있는 지표를 광범위하게 활용하였으며, 최근의 핵심 분야인 IT, BT 관련 지표를 많이 활용하였고, 둘째, 지식과 경제발전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표 분석을 하였으며, 셋째, 분야별 지표 분석 및 분야간의 연계를 나타내었다.

2001에 발간된 보고서의 큰 의미로는 새로운 과학기술지표 개발을 위한 전문가 그룹의 작업결과를 반영한 첫 보고서이다.

마치며.....

이상으로 OECD의 과학기술관련 조직과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현재 OECD의 과학기술지표전문가그룹(NESTI)은 신기술의 출현과 새로운 연구활동이 발전함에 따라 기술혁신조사 지침서인 Oslo Manual의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정보 통계는 특허청과 산하 연구원이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OECD의 과학기술지표전문가그룹에서는 지적재산(특허, 노하우, D/B 등)으의 질적 측정을 제안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빠른 시간 안에 지적재산의 질적 측정에 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우리나라는 특허정보 통계/분석에서 선진국과는 많은 격차가 있다. 이러한 격차를 없애고자 특허청에서는 특허넷 시스템의 구축과 특허정보 통계/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특허 정보를 효과적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는 기반의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고, 특허정보가 기술경쟁력 향상에 유용한 기초자료가 활용되어 산업계·학계·연구계의 발전은 물론 지적재산권 제도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선진국과의 특허정보 통계/분석 경쟁력 격차를 해소하고 특허정보 통계/분석 경쟁력 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더 많으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1. 권용수, 과학기술 정책관리연구소, “지식기반의 새로운 과학기술 지표 개발에 대한 OECD 논의”
2.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 통계/분석 중장기 발전계획 보고서”(2002. 12)
3. 캐나다 OST-“Taking Demand Seriously : The OECD and the Role of Users in S&T Statistics”
4. STI Scoreboard 2001 (2002. 09. 20)
5. http://www.oecd.org

OECD의 통계지표와 DATABASE 현황

조사분석4팀 이 일 규

과학기술 지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과 아시아 국가의 부흥을 위하여 경제대국으로 등장한 미국의 발전배경인 과학기술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개발되었다. 많은 국가에서 자국의 연구개발 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의 시작과 동시에 경제개발 협력기구(OECD)와 미국의 국립과학재단(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이 적극적으로 개발에 착수하였다 이후로 동서냉전시대를 거치면서 시대에 맞는 변화가 이루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OECD는 매뉴얼을 통하여 과학기술활동조사에 의한 세계적인 공유인식을 형성하고 매뉴얼에 따라 가맹국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기초로하는 지표관련 출판물을 발행하고 있는데, 데이터만 탑재하는 형식의 MSTI(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및 BSTS(Basic Science and Technology Statistics)의 그룹이 있다. <표1>참조.

	MSIT	BSTS
개 요	가맹국에 있어서 과학기술활동과 구조를 반영하는 지표세트	과학 · 기술 · 데이타베이스로부터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는 22의 통계표를 가맹국 각국마다 기재
표 수	89 • 연구개발에의 INPUT관련 70 • OUTPUT/INPUT 관련 19	22 • 연구개발에의 INPUT관련 18 • OUTPUT/INPUT 관련 4
시작년도	1988	1991
출판빈도	년 2회	2년마다(전자판은 매년)
커버년수	과거 7년(전자판은 1981년부터 커버)	과거 7년
언 어	영어 · 프랑스어	영어 · 프랑스어
내 용	표만 있음(텍스트 · 분석 없음)	표만 있음(텍스트 · 분석 없음)

표1. MSTI와 BSTS

MSTI는 가맹국에 있어서 과학기술활동과 구조를 반영하는 지표세트를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는 가장 자주 이용되는 OECD 가입국과 비회원 경제 7개국(중국, 이스라엘, 루마니아, 러시아 연방국,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대만)의 과학과 기술수행에 관련된 연간 데이터 중에서 선택하여 제공되며, R&D비용과 인적자원이 61개, 정부예산 · 지출연구개발비가 9개, 특허가 8개, 기술무역수지가 5개, 하이테크 무역이 6개로 총 89개의 표를 지표로 나타낸다.

BSTI는 Science · Technology · Database로부터 가장 빈번하게 인용된 22개의 통계표를 가맹국 각국마다 기재한 것으로, R&D비용과 인적자원이 17개, 정부예산 · 지출연구개발비가 1개, 기술무역수지가 1개, 특허가 3개로 총 22개의 표를 지표로 나타낸다.

<표2>는 OECD의 지표관련 표중 특허에 관련된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다.

OECD	
Main S&T Indicators	Basic S&T Statistics
국내출원 특허건구	특허사무소를 경유한 출원특허 건수
거주자출원 특허건수	
비거주자출원 특허건수	
해외출원 특허건수	
의존율(거주자에 대한 비거주자 특허출원율)	출원국별 비거주자 출원특허 건수
국내출원에서 점하는 거주자 특허출원율	
발명계수(인구 1만명당 거주자출원 특허비율)	
해외출원비율(거주자 국내출원에 대한 해외출원 비율)	출원국별 해외특허

표2. OECD지표의 특허관련 데이터

OECD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목적은 통계에 사용하기 위한 특허의 국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고품질과 현재 상황에 부합하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며, 데이터를 가공하고, 관련된 단체와 연구원 및 OECD 국가들의 정책개발원이 이용할 수 있는 지표와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데이터베이스는 OECD 국가들의 지난 20~30년의 모든 정리된 특허들을 포함하고 있다.

OECD는 EPO(European Patent Office: 유럽특허청), USPTO(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미국특허청), JPO(Japanese Patent Office: 일본특허청)그리고 OECD 가입국들(독일, 프랑스와 UK 및 그외 여러 국가들)의 주요 PTO 대행업체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한다.

OECD의 특허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로는 출원번호, 공개번호, 출원일, 공개일, 우선권 주장국, 출원국 등이 있다. <표3>참조.

- Priority, application and publication numbers;
- Priority, application and publication dates;
- PCT status (chap. I or II) ;
- Priority country;
- Applicant country;
- Applicant name and address;
- Status of the applicant (university, business, government);
- Inventor country;
- Inventor name and address;
- IPC classes;
- Designated states (EPO);
- Granted yes/no;
- Date of grant;
- Withdrawn or refused;
- Date of withdrawal or refusal;
- Number of claims;
- Renewal data;
- Citations of patents;
- Citations of scientific literature.

표3. 특허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는 정보들

OECD는 Industry와 Science&Technology 와 Globalisation 과 ICT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각나라 별로 정보를 수집한 DSTI(DIRECTORATE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에 의해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관리하고 있다. <표4> 참조.

Country	Industry	Science & Technology					Globalisation			ICT
	STAN	R&D	TBP	MSTI	ANBERD	Patents	AFA	FATS	BTD	Telecom.
Australia		✓	✓	✓	✓	✓			✓	✓
Austria	✓	✓	✓	✓		✓		✓	✓	✓
Belgium	✓	✓	✓	✓	✓	✓		✓	✓	✓
Canada	✓	✓	✓	✓	✓	✓	✓		✓	✓
Czech Republic	✓	✓		✓	✓	✓	✓	✓	✓	✓
Denmark	✓	✓		✓	✓	✓			✓	✓
Finland	✓	✓	✓	✓	✓	✓	✓	✓	✓	✓
France	✓	✓	✓	✓	✓	✓	✓	✓	✓	✓
Germany	✓	✓	✓	✓	✓	✓	✓	✓	✓	✓
Greece		✓		✓		✓			✓	✓
Hungray		✓		✓		✓	✓	✓	✓	✓
Iceland		✓		✓		✓			✓	✓
Ireland		✓		✓	✓	✓	✓	✓	✓	✓
Italy	✓	✓	✓	✓	✓	✓	✓	✓	✓	✓
Japan	✓	✓	✓	✓	✓	✓	✓	✓	✓	✓
Korea	✓	✓		✓	✓	✓			✓	✓
Luxembourg				✓		✓	✓	✓	✓	✓
Mexico	✓	✓	✓	✓		✓	✓	✓	✓	✓
Netherlands	✓	✓	✓	✓	✓	✓	✓	✓	✓	✓
New Zealand		✓	✓	✓		✓			✓	✓
Norway		✓	✓	✓	✓	✓	✓	✓	✓	✓
Poland		✓	✓	✓	✓	✓	✓	✓	✓	✓
Portugal		✓	✓	✓		✓	✓	✓	✓	✓
Slovak Republic		✓	✓	✓		✓			✓	
Spain	✓	✓	✓	✓	✓	✓			✓	✓
Sweden	✓	✓	✓	✓	✓	✓	✓	✓	✓	✓
Switzerland		✓	✓	✓		✓			✓	✓
Turkey		✓		✓		✓	✓	✓	✓	✓
United Kingdom	✓	✓	✓	✓	✓	✓	✓	✓	✓	✓
United States	✓	✓	✓	✓	✓	✓	✓	✓	✓	✓

표4. Current country coverage of main DSTI database used in this publication

<그림1>은 상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EPO 특허출원한 나라들의 시장점유율과 인구 백만명당 EPO에 특허출원한 수와 BERD(Business enterprise expenditure on R&D)에 의해 분할된 EPO 특허출원에 대하여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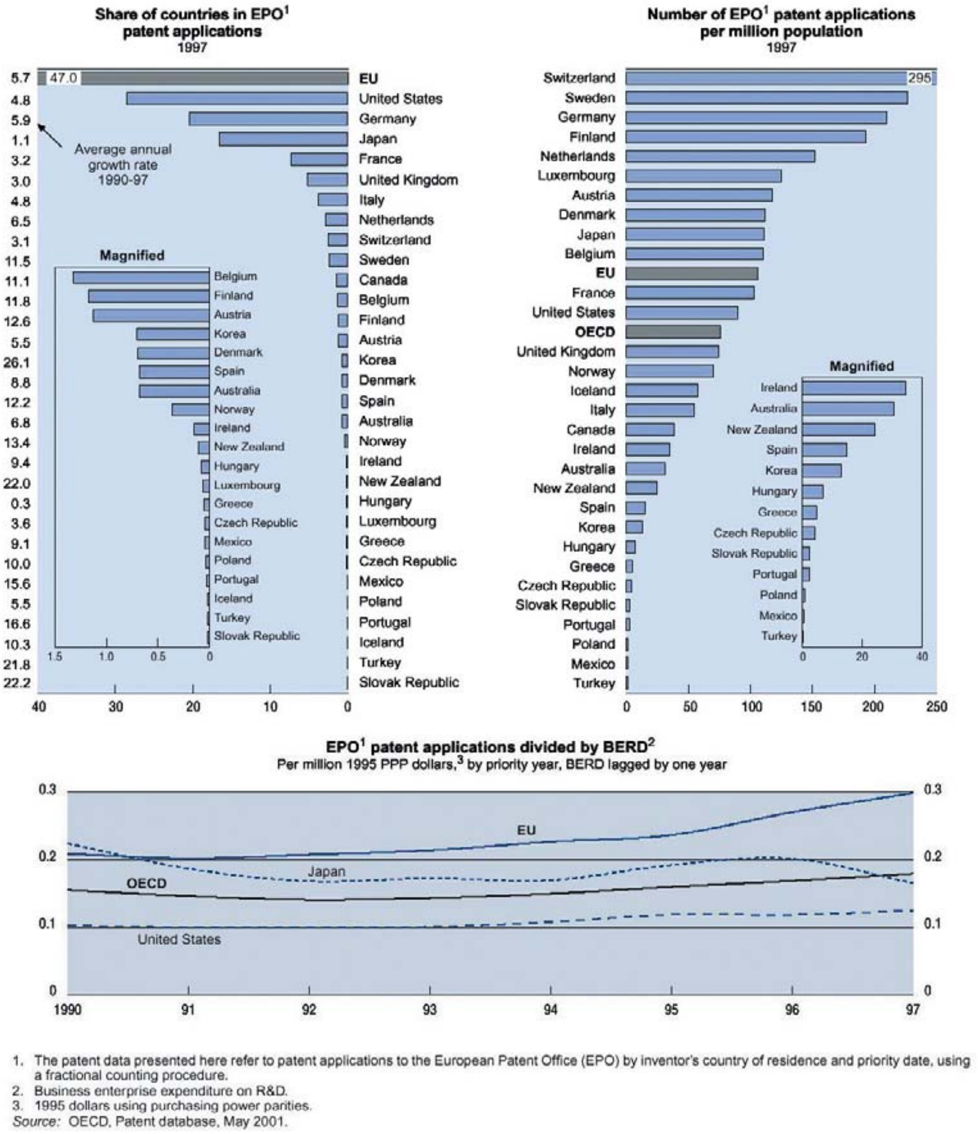


그림1. OECD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통계그래프

마치며...

이상으로 OECD의 통계지표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살펴보았다. 21세기는 "지식기반경제"시대라고 말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으리라 여겨진다. 지적재산권, 특히 특허 중심의 여러 가지 활동을 비교분석할 경우 특허획득 경쟁력 부문을 중요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특허획득 경쟁력 부문과 더불어 특허정보 통계/분석 부문 역시 중요도 면에서 절대 뒤지지 않는다. 이는 특허 정보 통계/분석 부문에서 특허에 대한 전반적인 향후 정책 및 전략을 이끌어 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는 체계화된 최첨단 과학기술정보인 지적재산권, 특히 특허정보를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다양한 특허정보관련 통계/분석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1.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 통계/분석 중장기 발전계획 보고서" (2002. 12)
2. 양윤모, 한국특허정보원 "과학기술지표 체계의 비교와 역사적 전개"
3. http://www.oecd.org
4. STI Scoreboard 2001

OECD의 지식재산권 활동

조사조정팀 장 관 용

OECD에 대하여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개발협력기구)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발전 그리고 세계무역 촉진을 위하여 발족한 국제기구이다.

제2차 세계대전 뒤 유럽은 미국의 유럽부흥계획(마셜플랜)을 수용하기 위해 1948년 4월 16개 서유럽 국가를 회원으로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를 발족하였고, 1950년에는 미국 · 캐나다를 준회원국으로 받아들였다. 1960년 12월 OEEC의 18개 회원국과 미국 · 캐나다 등 20개국 각료와 당시 유럽공동체(EEC:유럽경제공동체),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의 대표가 모여 경제협력개발기구조약(OECD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OECD가 탄생하게 되었고, 그 후 1961년 9월 20개국을 회원국으로 한 경제협력개발기구로 확대 · 개편하였다. 1990년대 이후 한국, 터키, 그리스, 멕시코 등 비선진국까지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2003년 현재 회원국은 30개국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1996년에 가입되었다.

OECD의 정책방향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고도의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을 추진하여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② 다각적이고 무차별한 무역 · 경제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며, ③ 저개발 지역에의 개발 원조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본부는 프랑스 파리 중심부에 있는 앙드레 파스칼 거리에 두고 있다. 여기서는 30개 회원국과 70여 관련 국가가 변화하는 글로벌시대에 대비한 전략을 짜내고 있는데 국제회의만 한 해 2000여회가 열리고 5만 여명이 이곳을 찾는다. OECD의 움직임은 세계를 예측하는 선행지수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지구촌 싱크탱크"로 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OECD의 지적재산권 관련 활동

OECD에서는 1994년 과학기술 지표로서의 특허통계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서인 「Patent Manual」발행 이후,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의 새 지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연구는 1995년 10월 과학기술위원회(CSTP) 각료회의의 요청으로 추진되었다. 1996년에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지표를 선정하고 정부 공식 기관의 설문조사와 통계정보의 부가적인 활용을 요청하고, OECD 회원국이 지식기반 경제의 혁신적인 수행과 관련 산출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지표를 개발하도록 협력할 필요를 인정하였다. 특히 평가(Assessment), 관리(Monitoring), 정책결정 목적에 필요한 데이터를 조사하고 수집하는 활동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운영위원회(각국 과학기술지표전문가(NESTI), 기술혁신정책(TIP) 전문가 그리고 과학시스템 전문가, OECD 사무국과 독자적인 전문가 등)가 이 연구를 감독하도록 임명되었고, 1996년 10월 CSTP 회의에서 새 지표 개발을 위해 7개 분야가 선정되었는데, 정책관련성, 데이터 원천과 통계적 기법의 이용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7개 분야는 「인적자원의 이동성」, 「특허지표」, 「기업의 혁신 능력」, 「R&D 국제화」, 「R&D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보통신 기술의 경제 기여도」, 「품질경쟁」이다.

이 중에서 「특허지표」에 대한 연구 과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특허지표에 관한 국제 특허 출원의 영향(Impact of International Patent Applications of Patent Indicators)"과제는 독일 ISI의 Ulrich Schmoch 박사가 유럽, 미국, 일본에 출원된 특허데이터를 바탕으로 특허의 가치가 높으면 유럽특허청(EPO), 특허협력조약(PCT) 또는 직접 출원의 절차를 거쳐 출원국 수를 확대하게 되고, PCT에 의해 출원 공개일이 18개월 더 지연됨에 따라 발명활동을 측정하는 특허통계의 한계성 및 그 영향 분석을 수행하였고, "국제 기술 지표로서 미국 특허의 이용 : 가능성 연구(The Use of U.S Patent Citations as International Technology Indicators A Feasibility Study)" 과제에서는 특허의 기술적 가치와 지식의 확산을 측정하여 국제 비교를 위한 특허 인용의 가능성을 연구하였고, 또한 "특허 데이터를 이용한 새 지표 발굴(New Indicators from Patent Data)"과제에서는 EPO의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 우선 연도에 의한 출원건수와 R&D 지출비 상관관계가 강하며 특허권 건수와 총요소생산성의 상관관계가 강함을 연구하였다.

OECD의 과학기술분야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는 1972년에 설립되어 상설 사무국인 과학기술산업국(Directorate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DSTI)의 감독과 지원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30개 OECD 회원국과 이스라엘,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 등이 업저버로 참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산하에는 5개의 작업반(Working Group)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술혁신정책그룹(TIP), 과학기술전문가그룹(NESTI), 생명공학그룹(GB), 과학시스템작업그룹(GSS), 거대과학포럼그룹(MSF)이 그것이다.

특히, 기술혁신정책반(TIP)에서는 국가혁신 시스템(NIS), 혁신에 대한 케이스 연구, R&D의 공공/민간 투자 형태, 혁신에 대한 공공/민간 파트너쉽 프로젝트, 혁신과 지식재산권, STI Outlook을 최근의 연구사업으로 정해놓고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중 혁신과 지적재산권 연구는 공공연구기관의 지적재산권 관리에 대한 연구로서 회원국 전문가들로 IPR Focus Group을 구성하여 관련 Survey 작성 및 사례연구의 작업방향제시 등의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도국은 네덜란드와 미국이며 한국, 독일, 일본 등이 참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생명공학그룹(GB)에서는 생명기술에 관련된 활동에서 연구, 개발 그리고 발명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유지하기 위한 지적재산권의 역할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 기술이전 및 유전자 자원 서베이(1996)를 진행하였으며 생명공학기술의 무역과 관련된 문제도 다루고 있다. 또한 생명공학기술과 관련되어 '생명공학 규제감시조화에 관한 실무작업반(Working Group for the Harmonization of Regulatory Oversight in Biotechnology)'과 '유전자변형식품 및 사료의 안전성에 관한 특별작업반(Task force for the Safety of Novel Foods and Feeds)'과 함께 1999년 G8 정상회의에서 요구된 5개 사항, 즉 유전자변형 식품의 안전성 평가, 환경적 영향, 국제 혹은 각 국가의 식품안전시스템 검토, 비정부간 기구와의 협의사항 등에 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과학기술전문가그룹인 NESTI에서도 2000년 부터 국제특허통계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여기서는 특허 데이터베이스 구축, 분석방법론 연구, 실증적 연구 수행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2004년 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OECD 회원국의 국내 특허 활동

<아래에 조사된 자료는 1983년부터 2001년 사이에 공개된 특허 771,760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OECD 회원국은 2003년 현재 기준인 30개국을 대상으로 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지난 해 5월 특허청과 한국특허정보원에서 공동 발간한 『특허경쟁정보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OECD 회원국의 국내 특허활동을 살펴보면, 전체 특허 출원 건수 771,760건 중 내국인 특허 출원이 451,548건으로 58.8%에 달하며 나머지 41.2%가 외국인 특허 출원 건수로 나타났으며, 내국인 출원건을 포함하여 OECD 회원국이 전체 특허출원의 9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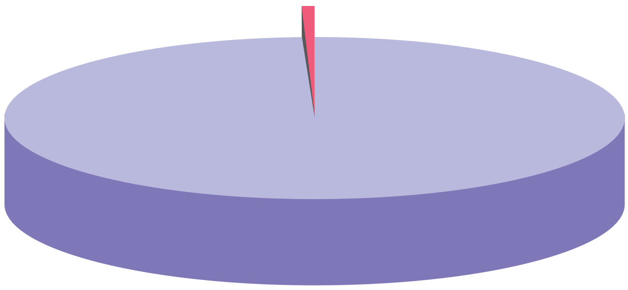


그림1.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국내 특허 출원 점유율 비교

특히, OECD 회원국 특허출원건수 순위에서는 내국인 출원을 제외하고 일본이 135,084건으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미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순으로 조사되었다.

번호	국 가	특허출원건수	번호	국 가	특허출원건수
1	한국	451,548	16	오스트리아	976
2	일본	135,084	17	노르웨이	582
3	미국	95,457	18	스페인	475
4	독일	29,199	19	헝가리	427
5	프랑스	11,479	20	룩셈부르크	233
6	네덜란드	9,880	21	뉴질랜드	188
7	영국	8,766	22	아일랜드	181
8	스위스	7,725	23	멕시코	39
9	스웨덴	3,829	24	그리스	36
10	이탈리아	3,822	25	폴란드	21
11	캐나다	1,952	26	체코	16
12	호주	1,868	27	포르투칼	14
13	벨기에	1,305	28	터키	12
14	핀란드	1,246	29	슬로바키아	10
15	덴마크	1,231	30	아이슬란드	7

표1. OECD 회원국별 국내 특허출원건수

OECD 회원국별 특허출원 점유율을 살펴보면, 일본 17.6%, 미국 12.4%, 독일 3.8%, 프랑스 1.5%로 나타났다. 그 외 네덜란드, 영국, 스위스가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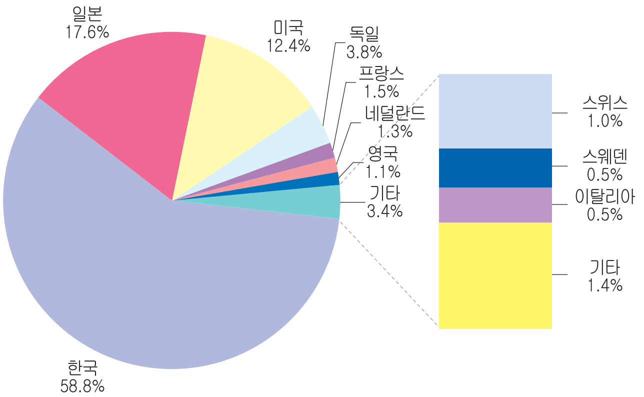


그림3. OECD 회원국별 특허 출원 점유율(%)

OECD 비회원국 중 특허 출원 순위 상위를 기록한 국가로는 대만(989건), 이스라엘(742건), 리히텐슈타인(342건)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특허출원 상위 30개 국가 중 OECD 비회원국은 8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번호	국 가	회원국	특허출원건수	번호	국 가	회원국	특허출원건수
1	한국	OECD	451,548	16	대만		989
2	일본	OECD	135,084	17	오스트리아	OECD	976
3	미국	OECD	95,457	18	이스라엘		742
4	독일	OECD	29,199	19	노르웨이	OECD	582
5	프랑스	OECD	11,479	20	스페인	OECD	475
6	네덜란드	OECD	9,880	21	헝가리	OECD	427
7	영국	OECD	8,766	22	리히텐슈타인		342
8	스위스	OECD	7,725	23	러시아		252
9	스웨덴	OECD	3,829	24	룩셈부르크	OECD	233
10	이탈리아	OECD	3,822	25	네덜란드안틸레스		218
11	캐나다	OECD	1,952	26	남아프리카		215
12	호주	OECD	1,868	27	중국		215
13	벨기에	OECD	1,305	28	뉴질랜드	OECD	188
14	핀란드	OECD	1,246	29	홍콩		182
15	덴마크	OECD	1,231	30	아일랜드	OECD	181

표2. 국내 특허 출원 상위 30개국 현황

마치며.....

현재 OECD의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에서 미래의 과학기술 정책을 위한 화두는 기술혁신과 인적자원의 유동성에 있다고 한다. 과학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과정인 연구개발(R&D)에서 기술이 경제 및 산업성장과 연계될 수 있도록 실용화하는 기술혁신 노력이 각국의 기술정책 테마로 부상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또한 OECD에서는 최근 과학기술분야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허를 포함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해주도록 중국측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지난 해 일본에서서도 중국의 해적판 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나선 터라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OECD는 권고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를 제재할 수 있는 권리는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전략적 권고는 보통 WTO(세계무역기구)의 중심 의제로 채택된다고 한다. WTO가 OECD의 과학기술정책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가 OECD를 눈여겨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참고 문헌】
한국특허정보원, 특허경쟁정보 보고서 2002.5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의 특허동향 2002 2002.1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OECD 기술혁신정책 활동 분석 2002
배영자, 생명공학기술과 국제 규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OECD 국가들의 기업 연구개발 지원 활동 조사 분석 2000
권용수, OECD 과학기술 지표 분야 활동 분석 및 평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9
정성창, 특허정보분석기법 2002
김승동, 경제개발협력기구 2003
www.oecd.org

PIUG 2003 Annual Conference 참가 결과 보고서

조사분석3팀 백 종 근

한국특허정보원은 지난 5월 2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시카고 할리데이 인 마트프라자에서 개최된 PIUG 2003 Annual Conference에 참가했다. 이번 호에서는 이번 행사 참가 결과 보고서를 게재한다.

(편집자 註)

1. PIUG(Patent Information Users Group)

: 특허정보 전문가 그룹

- ■ 1988년 미국에서 설립
- ■ 회원들간의 교육, 훈련 및 네트워킹이 주목적
- ■ 영국의 PATMG(Patent and Trademark Group)와 연계하여 인터넷 토론을 위한 1,400 여명의 가입자(subscribers) 확보
- ■ 600여명의 개인 가입자를 포함하여 각국을 대표하는 500여명의 회원(members)이 활동 중
- ■ 250개의 회사와 기관을 대표하는 2002~2003 주요 구성원은
  - – 기업(대부분)
  - – 법률 회사
  - – 특허청
  - – 대학
  - – 컨설팅 기업
  - –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특허정보 제공 기업임
- ■ 2001년에 이르러서 PIUG는 특허정보분야의 국제적인 커뮤니티로 확대되었는데 그 이유로는
  - – 비(非)미국 회원의 증가(현재 100명을 초과함)
  - – 세계 곳곳의 관련 커뮤니티와의 연계 필요
  - – Annual Conference의 국제적인 참여 확대에 기인함
- ■ PIUG는 특허정보 조사자(searcher)들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론하는 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음
- ■ 1년에 두 번 특허 데이터베이스의 발전에 대한 정보 및 써치팁, 회원동정에 관한 뉴스레터 발행
- ■ 1년 회원료는 30$
- ■ 매년 열리는 컨퍼런스 비용은 기업체의 스폰서에 의존하여 운영됨

[스폰서 종류 및 혜택]

스폰서종류	비 용	제공 형태	혜 택
GOLD	$1500	휴식시간에 음료 제공	• 전시회 공간 무료 제공 • 홍보(책자, 웹사이트 이용) • 5명 무료 등록
PEARL	$5000	아침식사 제공	• 전시회 공간 무료 제공 • 홍보(책자, 웹사이트 이용) • 3명 무료 등록
RUBY	$10000	점심식사 제공	• 전시회 공간 무료 제공 • 홍보(책자, 웹사이트 이용) • 2명 무료 등록
DIAMOND	$15000 이상	점심 및 저녁식사 제공	• 홍보(책자, 웹사이트 이용) • 1명 무료 등록

2. 컨퍼런스 내용 요약

- ■ PatInformatics: Patent Analysis for Fun and Profit
  - – 기술정보로서의 특허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의 기술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 특허정보의 적극적인 활용이 시급하다고 소개
- – 특허정보를 이용한 전략적 활용, 특허맵, 특허인용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소개
- ■ Keybnote: Patent Analysis: The Once and Future Discipline
  - – 아직 많은 부분이 논의중이지만, 현 상황을 Patent Analysis를 위한 학문적인 연구,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의 발전에 힘입어 「특허분석 황금기(Golden Age)」라 명명하고, 향후 Patent Information Specialists들의 역할에 대해 설명

■ Using Patent Information for Strategic Technology Management
- 특허정보를 이용한 기술경영 방법 소개
- 특허문헌에 담겨있는 정보는 경쟁자 모니터링, R&D 관리, 기술적 노하우의 습득, R&D분야의 인력관리 등 다양한 분야와 접목되어 지식경영을 위한 도구로 효과적 이용이 기대된다고 소개
- 특허정보의 활용 분야
· 경쟁환경속에서 기술적인 변화의 감지
· (잠재적)경쟁 기업 판별
· 경쟁사와 비교하여 R&D 효율성 평가
· 경쟁사의 기술전략 변화 감지
· R&D 예산의 효율적인 분배
· R&D 중복 투자 회피
· 외부에서 기술적인 노하우 습득
· 기업의 잠재적인 기술적 위치 평가
· 특정 기술분야에서 선도적인 발명가를 발굴

■ Roles For The Search Professional As A Partner In Patent Analysis
- 써치 전문가의 역할을 크게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설명
· Subject matter expertise
· Expertise in identifying and searching the appropriate data sources
· Expertise in selecting and using the right analytical tools

■ Data Visualisation - Experiences and Lessons Learned at 3M
- 3M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분석하는 각 단계별 소프트웨어 소개

■ Enhancing The Search Quality of Biotech Patent Information With Sequence Analysis
- 제약과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sequence analysis 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

■ Is There a Role for Patent Analysis in Competitive Intelligence
- 경쟁정보로서의 특허정보 활용 방안 모색
- 특허정보를 이용하여 경쟁기업의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이 필요함을 역설

■ Decision Pathways in Patent Searching and Analysis
- 특허를 검색하고 분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 및 모델을 소개
- Deterministic model, Probabilistic model etc.

■ Accurate Data Means Better Analysis
- IFIclaims社에서 보유한 CLAIMS(r) database를 소개
· 출원인 통일화 작업을 예로 들며 데이터의 신뢰성이 높음을 강조
· UPC와 IPC를 매칭시켜 특허순위 제공
· Patent Intelligence & Technology Report 소개

■ Questel-Orbit Enhancements and Patent Analysis/Visualization Tools
- Questel-Orbit에서 개발한 특허분석용 데이터 베이스 및 소프트웨어 소개
- 특허정보서비스업체에서 개발한 특허분석 Tools ; MEMS/GET, BizInt Smart Charts, IP Score, Derwent Analytics, Anacubis etc.

■ Analyze This - or Analyze That? STN Tools for Postprocessing and Analyzing Search Results
- 특허 써치 전문가들이 단순히 특허정보를 검색하여 제공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보다 심도있는 분석을 위해 STN에서 제공하는 ANalyze, TABULATE, STN EXPRESS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

■ Citation Analysis for Practical Use of the Results
- Wisdomain 김일수 사장이 발표
- Wisdomain에서 최근 개발한 Citation D/B를 이용하여 효과적이고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인용분석방법을 소개

■ Integrating Patent Analysis and Technical Intelligence Techniques: A Case Study
- Mogee Research & Analysis, LLC의 사장 Mogee 박사가 자사의 Citation DB를 소개
- 특히, Patent Citation Map 분석이 특이하였음

■ The State of the Art in Software Solutions for Enterprise Patent Quality Management
- 기업의 가치 창조를 촉진시키기 위해 보다 효과적으로 특허를 관리할 수 있는 Key를 소개

■ Patent Analysis for Business Manager : Applying a "develop vs license" perspective to the patent landscape
- 기업 경영인들이 새로운 R&D에 대한 투자, 인수 타깃, 잠재적인 기술 이전 타깃 등을 결정할 때 필요한 특허 정보를 보다 접근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소개.

■ Inform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 지적 재산(IP)의 개발, 보호와 상업화를 위한 정보의 검색 및 분석시스템에 대한 구조 및 일례를 소개.

3. 특기 사항

1) 2003년 컨퍼런스의 특징

■ 특허분석(Patent Analysis)이 메인 테마로 구성되어졌음

■ 약 320여명이 사전 등록하여 참석함
■ 특허 분석과 관련한 이론의 소개, 케이스 연구, 소프트웨어의 소개 위주로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전시회도 특허분석 소프트웨어의 소개가 주를 이룸
■ 국내에서는 윕스가 전시회에 참가하여 최근 개발한 전세계 특허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선보임
■ 일본에서는 PATOLIS Corporation이 참가하여 사장이 직접 자사 소개
■ 미국특허청에서는 부청장이 참석하여 『USPTO's 21st Century Strategic Plan』에 대해 소개
(부청장: James E. Rogan)

2) 컨퍼런스 구성

가. 전시회(Exhibition & Demonstration)
■ 특허정보 생산자(Producers) 및 판매자(Vendors) 중심
■ 전시회 참석 회사 (총 22개사)
anacubis, BizInt, Chemical Abstracts Service, ClearForest, Fix Karlsruhe, Gene-IT, Questel-Orbit, Thomson Dialog, Thomson Derwent, IFI Claims patent Services, INCOM, Metrics Group, Mogee Research & Analysis, PatentCafe PATOLIS, MPR International, Vantage Point/Search Technology, Thomson Delphion, IP.com, Metrics Group, Micropatent, Minesoft, WIPS, Wisdomain
■ 각 서비스업체들의 데이터베이스 및 소프트웨어 전시 및 시연
■ 특허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전시가 주목을 받음
■ WIPS에서는 지난 2년여 동안 자체 개발한 전세계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전시

나. 주제 발표(Presentation)

① 특허분석관련 주제 발표
■ Engineering & Technology (Emerging trends and solutions) : Thomson-Derwent 주최
- Engineering & Technology에 있어서의 특허활동 동향 : 핵심 기술 영역(전자/반도체, 자동차/항공, 컴퓨터, 통신, 전력, 로봇/자동화)에 대한 분석.
- 새로이 부상하는 기술들 : 신소재, 연료전지, 무선 통신
■ Analyzing Your Patent Search Results
: Delphion Inc. 주최
- Delphion의 분석 툴을 이용한 특허 서치 결과로부터 새로운 분석 방법 획득 - 그래픽 맵, 차트 제공.
· 라이센싱 및 다른 새로운 사업 기회에 대한 인식
· 경쟁력 개발 및 추적 활동
· 시장동향 파악
· 관련 분야별 서치 결과 정리
· 결과에 대한 신속한 이해
· 포워드/백워드 레퍼런스의 그래픽 맵을 통한 Citation Link.
■ PatInformatics: Patent Analysis for Fun and Profit
- 특허정보를 이용한 분석 방법을 새로운 영역의 학문으로 인식
- 기술정보로서의 특허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의 기술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 특허정보의 적극적인 활용이 시급하다고 소개
- 특허정보를 이용한 전략적 활용, 특허맵, 특허인용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소개

② 기타 주목할만한 주제 발표
■ USPTO's 21st Century Strategic Plan
- 특허 및 상표의 심사품질을 높이고, 기술분야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심사기간을 단축시키며, 전자정부(e-Government) 실현 및 심사관의 확충에 대한 계획을 설명
- 선행기술조사 관련
· 선행기술조사의 아웃소싱을 준비중
· 올해 안에 아웃소싱 업체를 선정함
· 조사료는 최소 $500+를 예상
■ Patent Analysis Methods for M&A Targetting and Valuation
- CHI社에서 Glaxo/SmithKline과 HP/Compaq 등 특허분석을 이용하여 M&A를 실시한 사례를 소개
- 특허분석은 기술적인 강점과 회사의 약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강력하고도 합리적인 수단이기에 M&A시에 성공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강조

4. 참가 후기

■ PIUG의 회원은 기업 등에서 특허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출발하였으며, 현재 이 분야 종사자들이 절반을 점유하고 있으며, 그 외 특허정보 서비스 업체 담당자들로 구성되어 있음
■ 300여명의 컨퍼런스 참가 회원 중 절반정도는 20여년 이상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상시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었음
■ 유럽 및 아시아에도 PIUG와 유사한 컨퍼런스가 매년 개최되고 있으나 PIUG 컨퍼런스에 비해 전문성이 부족함
- PATCOM Group : 1999년에 유럽에서 결성된 모임으로 특허정보 제공자의 모임으로 EPO와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음(본 컨퍼런스에 PATCOM 회장이 직접 참가하여 20여분간 PATCOM 소개함)
■ 그 외 싱가폴에서 매년 가을에 열리는 EAPLC, 영국의 PATMG, 유럽특허청의 EPIDOS, 일본의 특허FAIR 등이 매년 전시회를 비롯한 지재권관련 포럼을 개최하고 있음

제38회 발명의 날 기념식 개최

특허청은 지난 5월 19일 발명의 날을 맞아 서울 삼성동 COEX에서 제38회 발명의 날 기념식을 열고 발명진흥과 특허기술 개발에 기여한 80명의 유공자에게 훈 · 포장과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 하동만 특허청장, 박광태 한국발명진흥회 회장, 정태련 대한변리사회 회장 및 각계 발명 관계인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기념식에서 영예의 금탑산업훈장은 한일시멘트 정환진 사장과 LG전자 전시문 상무가 차지했다.

또 은탑산업훈장에는 인트로팩 이걸주 대표와 한국학교발명협회 김두선 회장에게 돌아갔다.

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특허출원국이면서도, 핵심기술과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가 취약하고 기술무역수지는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원천 및 핵심특허를 확대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참여정부는 제2의 과학기술입국 건설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갈수록 기술수명은 줄어드는데 반해 우리의 특허심사 대기기간은 늘어나고 있다"며, "현재 23개월인 심사 대기기간을 오는 2007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2개월로 단축하겠다"며 "그 추진상황을 제가 직접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어렵게 취득한 특허가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특허기술거래시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특허분쟁 관련 제도를 개선해서 경제적 약자의 특허권을 최대한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우리는 발명강국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질과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고급인력이 많은 우리에게 발명과 과학기술은 경제의 활로이자 내일의 희망"이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그 외의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동탑산업훈장	코코실버 안정오(安正五) 대표이사
	성용하이테크 이한중(李漢重) 대표이사
철탑산업훈장	남양매직 안영남(安永男) 대표
	동아에스텍 한상원(韓相源) 대표이사
석탑산업훈장	LG필립스디스플레이 한수덕(韓洙德) 상무
	보고엔지니어링 임성기(林成基) 대표이사
산업포장	대산압연 유병섭(柳炳燮) 대표
	삼성전자 정종삼(鄭鍾三) 수석연구원
	유니크 안정구(安定求) 대표이사
	예건산업 노영일(魯英一) 대표이사
	샬롬산업 김정매(金正梅) 대표이사
대통령표창	삼우개발 정주섭대표
	한국디엔에스 강희영 과장
	신한정밀전자 전석락 대표이사
	아이에스디지털 김정신 대표이사
	서울한산중학교 김병오 교사
	인하대학교(단체)
국무총리표창	(주)스틸코리아 박대열 대표이사
	(주)청풍 최윤정 대표이사
	(주)하영그린 하현영 대표이사
	한국화학연구원 박수진 책임연구원
	맥섬석 지.엠(주) 곽성근
	충북대학교 이상일 교수
	재원산업(주) (단체)

노무현 대통령「발명의 날」기념식 치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그리고 발명 관계자 여러분,

제38회 [발명의 날]을 온 국민과 더불어 축하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탁월한 창의력과 열정으로 新기술개발에 정진하고 계시는 발명인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께도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도 오래 전부터 발명과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독서대'를 개발해서 실용신안을 낸 일이 있고, '노하우 2000'이란 정치업무 표준화 프로그램을 만든 일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께 남다른 친밀감을 느끼고 있으며,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21세기는 지식과 창의력으로 경쟁하는 지식기반 경제시대입니다. 생산라인 하나 없이도 기술 판매만으로 세계적인 기업 반열에 오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한 발명인 여러분의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발명강국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질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수한 인적자원이 있습니다. 발명의 핵심 요소는 결국 사람입니다. 재력이나 학력, 나이나 성별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뜻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훌륭한 발명가가 될 수 있습니다. 좁은 국토와 빈약한 자원에 비해 고급 인력이 많은 우리에게, 발명과 과학기술은 경제의 활로이자 내일의 희망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창의력과 신명을 타고난 민족입니다. 장구한 세월 동안 쌓아온 지적 전통이 있습니다. 서양보다 200년이나 앞선 금속활자의 발명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세계 선두권으로 도약한 IT산업과 정보인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특허 출원 건수에서 국내특허 세계 4위, 국제특허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등록이 작년 말 처음으로 백만 건을 돌파하였습니다.

그러나 질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있습니다.

세계 4위의 특허 출원국이면서도, 핵심기술과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가 취약합니다. 기술 무역수지가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천특허 · 핵심특허를 더욱 늘려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의 혁신이 필수적입니다. 참여정부는 '제2의 과학기술입국'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명강국, 특허대국의 기틀을 착실히 다져나가고자 합니다.

특허심사의 대기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갈수록 기술수명은 줄어드는데 반해 우리의 특허심사 대기기간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23개월인 대기기간을 2007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2개월로 단축하겠습니다. 그 추진상황을 제가 직접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취득한 특허가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특히 자본이나 경영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개인발명가의 특허기술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특허기술거래시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허분쟁 관련제도를 개선해서 경제적 약자의 특허권을 최대한 보호해나갈 것입니다.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는 지방에 대한 '특허정보서비스 제공'도 더욱 확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변화와 혁신을 이루려는 우리 모두의 의지입니다. 낡은 것에 안주하려는 타성 속에서는 창조의 에너지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 모든 영역이 고정관념과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합리성과 창의성을 추구할 때 비로소 명실상부한 발명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참여정부의 국정원리인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의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국의 발명인 여러분, 여러분은 '제2의 과학기술입국'을 이끄는 첨병입니다. 발명선진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각별한 사명감을 갖고 계속 정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도 여러분의 변함없는 후원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과학기술과 발명이 21세기 우리의 국운을 좌우합니다. 모방기술만 가지고는 무한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소수의 천재 발명가에게만 의존하는 시대도 지났습니다.

창의적인 다수가 지식 창출의 대열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개개인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창의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합시다.

정부는 땀흘려 이룩한 성과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나아가 발명과 창조의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활력 있는 경제, 창의력이 샘솟는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뜻깊은 「발명의 날」을 다시 한번 축하하며, 발명인 여러분의 앞날에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특허청 공무원 행동강령」 5월 19일부터 실시

특허청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특허청 훈령 제371호 　　　　　　　　　　　　　　　제정 2003. 5. 15

특허청은 「특허청 공무원의 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이 특허청 훈령으로 제정되어 03.5.19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특허청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므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등의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행동강령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공정한 직무수행」보장을 위하여,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는 소명을 거쳐 거부할 수 있고,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의 이해와 충돌하는 경우, 회피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신뢰제고를 위하여 업무추진비등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둘째, 「부당이득의 수수금지」를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 청탁 · 이권개입 행위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행위를 금지하고, 소관업무와 관련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 선물 또는 식사를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직무관련공무원간의 식사대접은 3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금지하고, 경조사비는 5만원의 범위 내에서 주고 받도록 제한하였으며, 일정 회수 이상의 외부강의에 대해서는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넷째, 「행동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고,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신고 및 처리절차와 징계관련 규정을 마련하였다.

특허청은 이러한 행동강령의 내용들이 공무원의 '행위준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시정조치를 취하여 특허청 직원들의 윤리의식 제고를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특허심판원, 개원 5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특허심판원(원장 정양섭(鄭禳燮))은 지난 5월 28일(수) 오후 2시 한국지식재산센터(KIPS)에서 개원 5주년을 기념하여 세미나를 개최했다.

특허심판원은 사법개혁 일환으로 특허법원과 함께 '98년 특허청장 소속하에 설립된 독립행정심판기관이다.

이번 세미나는 변리업계, 지식재산법학계, 과학기술계, 산업계 인사들이 함께 모여 1998년 3월 1일 개원 이후의 특허심판원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함과 아울러 특허쟁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는 토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세미나는 특허심판원장의 개회사와 특허청장(河東萬)의 축사에 이어 제1주제와 제2주제로 나누어 진행됐다.

먼저, 종전의 특허청 심판소장으로 재직하면서 특허심판원 발족의 산파역을 담당하였던 김태윤 변리사의 『특허심판원 5년의 회고와 전망』이란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자로서 최정렬 특허법원 판사, 김정중 LG전자 부장, 김병진 변리사, 유영기 심판장 등이 지난 5년 동안 특허심판원의 잘한 점 · 못한 점 등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해보는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어 이상정 경희대 법대 교수가『특허쟁송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산업재산권 심판 · 소송과 관련하여 현안이 되고 있는 특허침해소송의 관할집중, 기술판사의 도입,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이에 대해 토론자인 강기중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승문 변호사, 이인정 삼성전자 부장, 김성기 변리사, 전상우 심판장의 토론이 있었다.

특히 "특허침해소송 항소심의 특허법원 전속관할"문제는 지난 16대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당과 한나라당 양당의 공약사항으로서 현재 국회의원 120명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번 개원5주년 기념 세미나를 도약의 계기로 삼아 논의결과를 심판원의 발전에 활용하여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고 공정하며 신속한 특허심판원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계획이다.

특허정보분석 매뉴얼 발간

특허청에서는 국가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의 전략적 수행을 위해 특허정보의 활용 및 확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과학기술활동 측정을 위한 특허정보의 분석 · 활용 매뉴얼과 국가간 기술 비교를 위한 특허정보의 활용에 관한 매뉴얼을 번역 · 합본한 **[특허정보 분석 매뉴얼]**을 발간하였습니다.

본 매뉴얼은 과학기술활동의 투자, 인력, 예산 등의 데이터를 수집, 측정, 활용하기 위한 OECD의 여러 매뉴얼 중에서 연구개발 성과 측정을 위한 매뉴얼에 해당됩니다.

특허 관련 통계 등 특허정보를 경제 분석, R&D 및 혁신 지표로서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 기관간 차이점, 기술 및 경제 분야의 구체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본 매뉴얼은 이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 차

제1부 과학기술지표로서 특허데이터의 활용	제2부 국가간 기술성과 비교를 위한 특허건수의 활용
제1장 배경 및 개념틀 **제2장** 특허법 제도 **제3장** 특허문서에서 최신기술 정보까지 **제4장** 과학기술 및 경제분석에서의 특허지표 **맺음말** (※부록제외)	**제1장** 서론 **제2장** 통계 데이터 원천으로서의 특허 **제3장** 장소, 시간, 국가, 일자별 특허분류 **제4장** 특허 패밀리 **제5장** 결론

[원 문]
본 자료의 원문은 아래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 제1부 과학기술지표로서 특허데이터의 활용
"Using Patent Data as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Patent Manual" 1994
http://www.oecd.org/pdf/M000014000/M00014548.pdf
• 제2부 국가간 기술 성과 비교를 위한 특허건수의 활용
"Using Patent Counts for Cross–country Comparisons of Technology Output" STI Review No.27 (Volume 2000 No.2) pp.130~146.
http://www.sourceoecd.org

특허청, 「산업재산권 출원안내 후견인 제도」시행 – 2003. 6. 10일부터 –

특허청은 장애인, 노약자, 연소자, 국가유공자 등이 출원접수단계에서 출원절차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산권 출원안내 후견인 제도」를 6월 10일부터 운영한다.

특허청의 특허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청 차원의 종합마련대책에서 민원행정 제도개선 세부추진계획 과제 중에 포함된 이번 후견인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추진되는 것이다.

「산업재산권 출원안내 후견인 제도」란 장애인, 노약자, 연소자, 국가유공자 중 출원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출원인(대리인을 통한 출원인은 제외)이 출원 사전절차, 출원상담, 출원서 작성, 출원서 제출 등 출원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도움요청이 있을 경우, 종합민원실(서울사무소 포함) 전문 상담관 및 특허고객콜센터의 전문상담원이 출원절차 등에 관하여 일체의 자문, 상담 및 출원 절차 등을 원스톱(One-Stop)으로 안내해 주는 출원인 상담지원 제도를 말한다.

후견인은 종합민원실(대전) 전문상담관, 출원안내 전담직원 등 특허 · 실용신안 담당 1명과 의장 · 상표 1명, 출원안내 전담직원 1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산업재산권 출원안내 후견인으로 지정된다. 서울 사무소는 대전 본청에 준하여 별도로 지정 운영된다.

또한 비방문 출원인에 대하여는 특허고객콜센터의 기 운영중인 전담상담원 7명을 산업재산권 출원안내 후견인으로 병행 지정하여 활용하게 된다.

이번 「산업재산권 출원안내 후견인 제도」시행으로 그동안 출원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출원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장애인, 노약자, 연소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하여 맞춤형 원스톱(One-Stop) 출원 안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 실현을 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범 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실질적 구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산업재산권 출원안내 후견인 제도」 이용안내

■ 방문민원인
- 장애인, 노약자, 연소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중 출원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출원인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특허청 종합민원실(서울사무소 포함)을 방문하시어 산업재산권 출원안내 후견인의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출원절차 진행상의 출원 사전절차, 출원상담, 출원검색, 출원서 작성, 출원서 제출 등 모든 과정에 대하여 일체의 자문, 상담 및 출원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 인터넷 출원인
- 특허청 특허고객콜센터에 전화(전국 어디서나 1544-8080(발명발명))하시면 됩니다.
- 특허고객콜센터 상담과정에서 산업재산권 출원안내 후견인의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산업재산권 출원안내 후견인으로 지정된 담당 전담상담원이 출원절차 진행상의 모든 과정에 대하여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 「산업재산권 출원안내 후견인 제도」실시로 다음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산업재산권 출원 사전절차(출원인 코드 신청, 전자문서 이용 신고 등) 출원상담, 출원검색, 출원서 작성, 출원서 제출 등 출원과정 전반에 관하여 일체의 자문, 상담 및 출원절차 등을 안내
- 인터넷 출원인의 경우에도 상담예약이 가능하며 전화번호를 남기시면 원하는 시간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Mr. Kamil Idris, WIPO 사무총장으로 재선출

2003. 5. 27일, 스위스 제네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본부에서 개최된 WIPO 임시총회에서 179개 회원국은 수단 출신의 Mr. Kamil Idris 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사무총장을 만장일치로 임기 6년의 차기 사무총장으로 재선출하였다.

Mr. K. Idris 현사무총장은 지난 6년의 임기(97. 12 03. 11)동안 결과중심의 사업예산 도입 등으로 WIPO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지식재산 정책 전개로 지식재산 분야 UN전문기구로서의 WIPO 위상을 공고히 한 점이 주요 업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재임기간중 지식재산 분야에 있어 대개도국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회원국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개도국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 것이 재선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Mr. K. Idris WIPO 사무총장의 새로운 임기는 오는 2003. 12. 1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 문의 : 기획관리관실 국제협력과 서기관 서을수, 전화 042-481-5072

Dr. Kamil Idris WIPO 사무총장

WIPO 사무총장 약력

■ 공식 직함 : Director General (1997. 11월 선임)
■ 성　　명 : Dr. Kamil Idris
■ 국　　적 : Sudan
■ 학　　력 :
- BA, Philosophy, Political Science and Economic Theories University of Cario (이집트)
- MA,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Affairs University of Ohio (미국)
- Ph.D., International Law, Gradu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of Geneva (스위스)

■ 주요 경력 :
- 1997~현재 : WIPO 사무총장
- 1994~1997 : WIPO 사무차장(Deputy Director General)
- 1985~1994 : WIPO Director, Development Cooperation and External Relations Bureau (in charge of Arab and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 1982~1985 : WIPO Senior Program Officer, Development Cooperation and External Relations of Africa
- 1979~1982 : 스위스주재 수단 부영사(Vice-Consul of Sudan in Switzerland)
- 1976 : 카이로대 강사(Lecturer, University of Cairo)

노 대통령, KIPRIS 통해 본인의 29년전 실용신안 검색

노무현 대통령이 KIPRIS 검색시스템을 통해 29년전 본인이 출원한 실용신안 도면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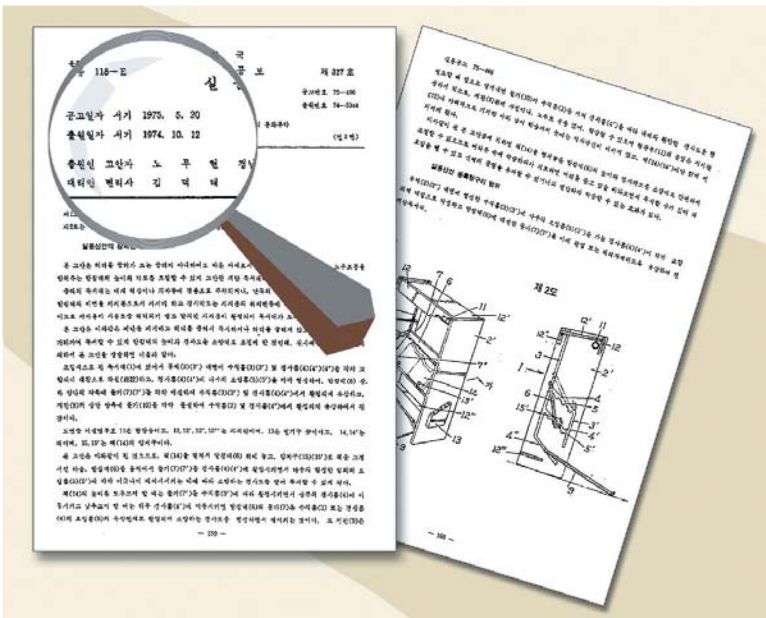
노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COEX에서 열린 발명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발명품 전시관을 둘러보며 특허청 전시관 사이버 특허행정 체험 부스에서 특허정보검색시스템(KIPRIS) 시연을 통해 지난 1974년 10월 12일 출원한 개량독서대 공보전문실을 보며 감회에 젖었다.

노 대통령이 출원한 개량독서대는 허리를 굽히거나 또는 굽히지 않아도 바른 자세로서 독서할 수 있도록 책이나 노트 등을 받쳐주는 받침대의 높이와 강도를 조절 할 수 있게 고안된 것으로 75년 9월 2일자로 등록되어 권리를 취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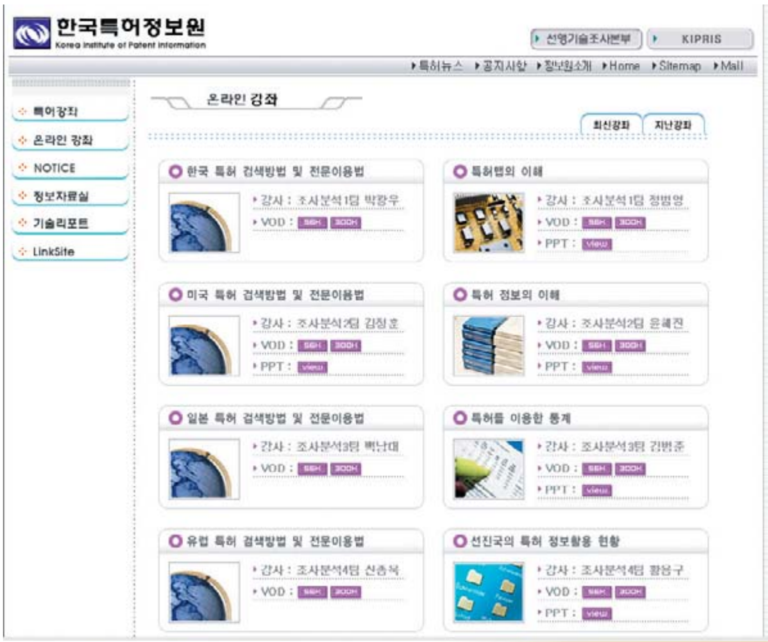
특허정보검색 시연에 대한 브리핑을 담당한 특허청 이은우 국장은 KIPRIS 검색시스템을 통해 개량독서대의 실용신안 공보 전문을 출력, 노 대통령에게 건넸으며 노 대통령은 “기념으로 가져가도 되겠죠, 제법 괜찮죠.”라며 쑥스러워 했다.

동행한 영부인 권양숙 여사는 “74년도 것이... 아이 참”이라며 신기해 했으며, 노 대통령은 “이것 다달이 돈 안내면 없어져요”라고 특허 연차료에 대한 언급을 했다.

한편, 노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씨도 지난 91년 ‘낚시대 받침구’에 대한 실용신안을 출력,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특허강의 안내



한국특허정보원에서는 일반인의 특허인식 제고와 산업재산권의 효율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온라인 특허강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온라인 강의개시일 : 2003년 5월 1일(목)
2. 접속 위치 : 한국특허정보원 조사분석팀 홈페이지 (http://www.chosa.or.kr)
3. 강의교재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4. 강의대상 : 홈페이지 접속자 누구나
5. 강의내용 : 아래표 참조

주　　제	강 의 내 용
한국특허 검색방법 및 전문 이용법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무료특허정보 On-Line 검색시스템(KIPRIS)에 대한 이용방법 설명 및 전문가의 검색시연 동영상 제공
미국특허 검색방법 및 전문 이용법	미국특허정보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는 미국특허청 홈페이지(USPTO)에 대한 이용방법 설명 및 전문가의 검색시연 동영상 제공
유럽특허 검색방법 및 전문 이용법	유럽 특허정보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는 유럽특허청 홈페이지(ESPACENET)에 대한 이용방법 설명 및 전문가의 검색시연 동영상 제공
일본특허 검색방법 및 전문 이용법	일본 특허정보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는 일본특허청의 검색시스템에 대한 이용방법 설명 및 전문가의 검색시연 동영상 제공
특허정보 활용	1) 특허정보의 이해 2) 특허를 이용한 통계 3) 특허맵의 이해 4) 선진국의 특허정보 활용 현황

◆ 기존에 제작된 온라인 강의 컨텐츠 (「지식재산권 개론」, 「특허법 개요」, 「특허출원의 필요성 및 출원절차」, 「특허정보조사 및 활용방법」)도 청강하실 수 있습니다.

KIPRIS 이용약관 개정안내

저희 한국특허정보원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부가서비스에 대한 내용 반영 등을 위하여 이용약관의 미비점을 보완ㆍ개정하여 시행하오니 이용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시행일자 2003. 6.2 (月)

■ 이용약관 주요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1조(목적) …한국특허정보원이 제공하는 특허기술 정보서비스(KIPRIS, 이하 "서비스"라 함)…	제1조(목적) …한국특허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함)이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	
제2조(용어의 정의) 4.…한국특허정보원에 지불하는 금액	제2조(용어의 정의) 4.…정보원에 지불하는 금액	
제3조(데이터베이스) 1.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는 한국특허,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삭제)	
제4조(이용자 ID 및 패스워드) 1. …한국특허정보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ID를 등록 해야 합니다.	제3조(이용자 ID 및 패스워드) 1. …정보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ID를 등록 해야 합니다.	
제5조(이용자 설비) 1.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신 회선, 장비, 개인용 컴퓨터 등의 모든 설비를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모든 설비는 한국특허정보원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삭제)	
제6조(이용시간) 2. 서비스 제공일 및 시간대의 변경은 15일전에 이용자에게 공시합니다.	제4조(이용시간) 2. 서비스 제공일 및 시간대의 변경은 시행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공시합니다.	
제10조(이용조건) 1. 서비스의 이용은 이용자 또는 이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조사연구 또는 변리사의 출원대리업무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제3자에 의한 이용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제3자에게 배포할 수 없습니다.	제5조(이용조건) 1. 이용자는 습득한 정보를 정보원의 사전 허락없이 영리목적으로 복제 또는 번역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삭제)	
제7조(온라인/다운요금) 1. 온라인/다운요금은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15일전에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2. 이용자는 등록된 이용자 ID에 의한 온라인/다운요금을 한국특허정보원에게 전액 지불하여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6조(온라인/다운요금) 1. 온라인/다운요금은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전에 홈펭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공시합니다. 2. 이용자는 온라인/다운기능을 이용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온라인/다운이용 요금을 정보원에게 전액 지불하여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7조(온라인/다운요금) 3. 한국특허정보원은 온라인/다운요금을 분기별로 합산하여 이용자에게 청구하고, …한국특허정보원이 별도로 정한 방법으로 온라인/다운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6조(온라인/다운요금) 3. 정보원은 온라인/다운요금을 분기별로 합산하여 이용자에게 청구하고, …정보원이 별도로 정한 방법으로 온라인/다운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8조(장애의 조치 및 책임) 1. …한국특허정보원은 복구를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강구합니다. 2. 한국특허정보원은 중단된 온라인/다운에 해당하는 …	제7조(장애의 조치 및 책임) 1. …정보원은 복구를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강구합니다. 2. 정보원은 중단된 온라인/다운에 해당하는…	
제9조(데이터베이스의 오류에 의한 손해) 1. (생략)	제8조(데이터베이스의 오류에 의한 손해) 1. (현행과 동일)	
–	제9조(개인정보 보호방침) 1. 정보원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신설
–	제10조(홈페이지 저작권) 1. 정보원이 게시한 본 홈페이지의 모든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정보원에 귀속됩니다. 다만, 게시물의 원저작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하며 해당 게시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2. 이용자가 직접 게시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는 정보원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 3. 정보원은 정보원 소유의 게시물에 대하여 제3자가 허락없이 다른 홈페이지를 사용 또는 인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신설
제11조(이용의 취소) 1. ...한국특허정보원은 이용자의 이용을 취소 할 수 있으며, ...한국특허정보원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이용의 취소) 1. ...정보원은 이용자의 이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정보원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12조(관할법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정보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신설
제12조(이용약관의 발효) 1. (생략)	제13조(이용약관의 발효) 1. (현행과 동일)	

발명의 달 기념 틀린그림찾기 이벤트 당첨자 발표

5월 발명의 달 기념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이용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당첨되신 분들께 축하드립니다.
◈ 당첨자 발표일: 5. 19.(월)
◈ 시상내역 : 문화상품권(3만원) 30명
저희 한국특허정보원은 앞으로도 특허정보 도우미 역할에 정성을 다할 것이며,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KIPRIS사업팀 3452-8144(내선 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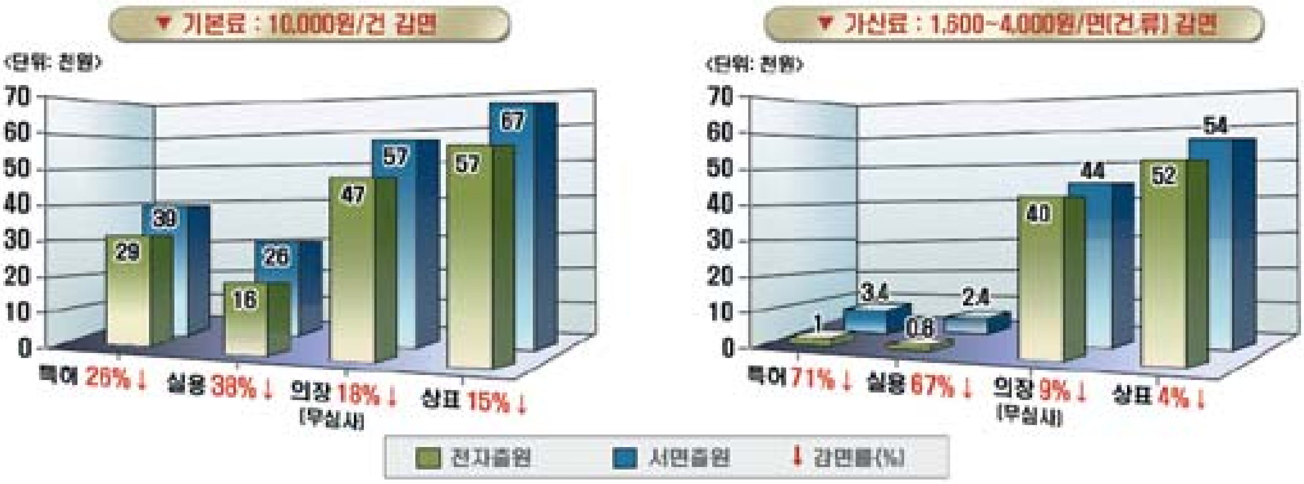
당첨자 명단

번 호	이 름	주 소
1	강봉구	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2	김기환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3	김덕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4	김명희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5	김미영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뉴텍국제특허법률사무소
6	김영준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1동
7	김판재	부산 사하구 하단2동
8	김형우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9	김　훈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0	노병대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11	박솔이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12	송연섭	서울시 중구 충무로3가
13	송혜진	인천시 계양구 효성1동
14	안부식	부산 서구 서대신동3가
15	안준선	서울 용산구 이촌1동
16	유승주	경남 김해시 안동
17	이두의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고매리 중앙연구소
18	이영길	충북 제천시 신백동
19	이은실	경북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20	이의용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지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21	정문성	서울 성북구 하월곡1동
22	정영화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상갈기 동아제약 연구소
23	정유미	울산 중구 학산동 90-18
24	정　통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주)케이지아이
25	정환구	서울 강남구 대치동 문앤문특허사무소
26	조연숙	전북 익산시 영등동
27	차강주	서울시 강북구 번1동
28	최은정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29	한문기	충남 청양군 정산면 역촌리 애경화학기술연구소
30	홍병우	전북 익산시 인화동

특허청 전자출원 지원실 안내

전자출원의 장점

- 서면출원에 비해 수수료가 훨씬 저렴합니다.



- 출원과 동시에 출원번호를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출원 지원실 이용시 이점

- 전자출원 안내 및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출원에 필요한 전산장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출원 관련 책자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출원 지원실 이용 절차

- 민원실 접수창구에서 출원인코드 부여신청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후 , 전자출원지원실에서 전자출원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전자출원서를 작성합니다.

민원실 접수창구
출원인코드 부여신청
전자문서 이용신고

→

전자출원 지원실
전자출원서 작성

▶ 특허와 실용신안의 경우 출원할 내용을 미리 파일로 만들어 오시면 편리합니다.

전자출원 지원실 위치

- 서 울 : 특허청 서울시무소 민원실 내 (02-556-1522)
- 대 전 : 특허청 종합민원실 내 (042-481-5215)

※ 특허청 특허고객콜센터 : 1544-8080

특허청
www.kipo.go.kr

도메인 분쟁시 상표출원자에게 유리

도메인을 제대로 지키려면 상표권을 등록해야 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도메인 분쟁이 "상표권"을 보호하는 추세로 변모함에 따라, 도메인 전문 스쿼터 스쿼터 (도메인 매점매석 행위자)가 상표권을 등록해 두고 기존 도메인에 대한 분쟁 소송을 내는 사건이 생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에서는 기존의 도메인 스쿼팅 관행을 해소할 목적으로 상표권 등록시기 보다 먼저 등록된 도메인의 경우라 하더라도, 상표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다수 인터넷기업들의 인식부족으로 자칫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엠파스를 운영하고 있는 지식발전소의 경우, 오래 전부터 empas.com이란 도메인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영문 상표권 등록만 했을 뿐 한글도메인 상표권은 확보하지 않았다. 특허청에 따르면 엠파스란 상표는 의류관련 업체가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프라인 동일상표 사업자나 상표권을 취득한 도메인 전문스쿼터가 악의를 가지고 해당 도메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면 피곤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경우다. 기업입장에서는 시간적, 물리적 손해 뿐 아니라 이미지에도 커다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현재 국내 다수 인터넷기업들이 상표권 등록을 해놓고 있지 않은 상태. 엠파스를 비롯 오르지오, 딴지일보, 아이비즈넷, 맥스무비 등은 특허청 상표검색에서 해당상표에 대한 등록자가 없는 것으로 검색됐다.

도메인 호스팅 기관인 후이즈는 "상표의 경우엔 분쟁가능성이 적더라도 회사의 주요한 브랜드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메인과 함께 국문, 영문 상표권 등록을 해두어야 한다"며 "기업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메인등록과 상표권 등록이 통합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daily 2003/05/29]

日 대기업과 특허소송서 승리
자동 藥 포장업체 '제이브이메디'

한 중소기업이 국내 대형 로펌을 낀 일본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에서 대법원까지가는 치열한 법정싸움끝에 승리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국제 특허분쟁은 자동약 포장기업체인 제이브이메디(대표 김준호)와 이분야 세계 최대기업인 일본 유야마사간에 약국 자동화장비의 일종인 자동정제분류포장시스템(ATDPS)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이 시스템은 의사의 처방전을 가져오면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기계가 자동으로 약을 조제하고 복용법까지 표면에 프린터해 주는 기술로 세계에서 4개 회사만이 보유하고 있다.

기계 1대당 가격도 1억원을 호가할 정도의 고부가제품이다.

특허소송은 제이브이메디가 지난 99년 이 제품을 국산화, 연간 2백억원 규모인 국내 시장의 90%를 석권한 후 일본업체의 아성이었던 미국시장까지 잠식하면서 발생했다.

유야마사가 제이브이메디의 당시 주력제품이었던 반통형 디자인이 자신들의 원통형 제품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제이브이메디는 "말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국내 특허법원은 제이브이메디에게 두차례 패소판결을 내 렸다.

이 과정에서 유야마는 해외 바이어들에게 승소사실을 알리며 제이브이메디가 더이상 수출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국내 대학병원, 약국 등을 상대로 수십 건의 기계 사용금지 가처분소송도 제기했다.

제이브이메디로선 미국과 체결한 1천만달러짜리 계약이 무산되는 등 수백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자칫하면 회사가 문을 닫을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제이브이메디는 유명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는 등 전력 대응에 나서 최근 판결을 뒤집었다.

김 사장은 "유야마측에 피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며 "수출주문이 꾸준히 늘어 내년에는 4백억원대의 매출 달성이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 2003/05/28]

사스 바이러스 예방-치료 기술 국내 첫 개발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를 부작용 없이 예방.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생명공학 벤처기업들에 의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개발됐다.

생명공학 전문 벤처기업인 ㈜바이오리더스(대표 성문희)와 ㈜엠디랩(대표 김철중)은 사스 바이러스 항원(抗原)을 식용 유산균 표면에 나타나도록 해 이 유산균을복용함으로써 체내에 사스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抗體)를 형성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기술 개발에 사용된 사스 바이러스 항원은 바이러스 표면을 덮고 있는 표면항원(spike protein)으로, 바이러스가 체내에 유입하면 세포에 침입하는 첨병역할을 수행하지만 자체로는 사스의 유독성을 전혀 갖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은 사스 바이러스가 아닌 식용 유산균 표면에서 이 항원이 표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내에 부작용없이 사스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형성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바이오리더스의 이종수 박사는 "사스 바이러스와 같은 계통의 코로나 바이러스인 PED(돼지유행성설사병).TGE(전염성위장염) 바이러스의 표면항원을 이번에 개발한 기술을 이용해 유산균에 접목, 돼지와 쥐에 투여한 결과 PED와 TGE에 대한 저항력이 크게 높아졌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 기술은 혈액내 면역기능인 체액성 면역(IgG)과 코와 장 등의 점막내 면역기능인 점막면역(IgA)을 동시에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산균을 치료.예방의 매체로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고 장기 투여가가능하다는 특징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성문희 ㈜바이오리더스 대표는 "임상실험 등을 거쳐 늦어도 3년이면 이 기술을상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 "그러나 사스 예방.치료제에 대한 세계적인 시급성을 감안하면 유수한 제약 회사들과의 제휴를 통해 훨씬 빨리 상용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바이오리더스 등은 한국은 물론 일본을 비롯한 외국에 이 기술에 대한 국제특허를 출원한 상태다.

㈜바이오리더스와 ㈜엠디랩은 둘 다 생명공학 분야 학내 벤처기업으로, 각각 국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소속이다.

(연합뉴스) (6. 8)

암세포 유전자 활용 인공동맥 제작 성공

사람의 근육세포에 특수 유전자를 넣어 인공동맥을 만들어내는 길이 열렸다.

영국 BBC 인터넷판은 최근 미국 듀크대 메디컬센터 로라 니컬슨 박사가 시험관에서 인간동맥을 만드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니컬슨 박사는 이 연구를 과학학술지인 '유럽분자생물학' 최신호에 발표했다.

니컬슨 박사는 사람의 평활근 세포에 암세포의 유전자 'hTERT'를 넣어 동맥의 외피를 배양한 뒤 여기에 동맥 내피를 덧붙여 인간 동맥을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유전자 'hTERT'는 암세포가 무한히 증식하도록 하는 유전자다.

과학자들은 그동안 동맥을 인공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으나 동맥의 외피를 형성하는 평활근 세포를 시험관에서 배양하는 데 실패했다.

니컬슨 박사는 "이 신기술은 막히거나 문제가 있는 동맥을 인공동맥으로 대체하는 수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인공동맥이 실용화되려면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 사이언스)

고온에서 우수한 강도를 가지는 알루미늄 복합 소재 와이어

미네소타주의 미니아폴리스에 위치한 3M사의 연구진과 테네시주의 오크 리지에 위치한 오크 리지 국립연구소의 연구진은 송전 라인에 사용할 알루미늄 복합 소재 와이어를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려졌다. 이 알루미늄 복합 소재 와이어는 알루미늄 기지에 3M 650 세라믹 섬유가 내재된 것이다.

이 복합 소재 와이어는 전류 부하에 의해서 열이 발생될 때 기존의 와이어보다 신장률이 작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크 리지 국립 연구소의 John Stovall 박사는 "3M사의 복합 소재 코어의 새로운 전도체(composit-core conductor)는 와이어를 생산하는 비용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송전 라인의 송전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미량의 지르코늄을 첨가함으로써 매우 높은 온도에서의 변형 내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알루미늄 복합 소재를 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알루미늄 기지는 케이블이 녹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3M사는 전도체 와이어를 생산하기 위해서 Nexans and Wire Rope Industries사와 공동 작업하고 있다. 현재 오크 리지 국립 연구소는 스트레스/변형 곡선, 파괴점과 같은 장력이나 처짐에 관한 데이터를 관찰함으로써 컴퓨터 모델의 예측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전도체의 전체적인 성능을 평가하는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개발된 전도체는 열간 500사이클의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실시했으며, 와이어가 견딜 수 있는 최고 하중 테스트도 실시했다. 또한 정상적인 하중으로 와이어의 수명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Advanced Materials and Processes, 2003년 1월 호)

바닥재 시장도 건강기능성 제품이 평정

90년대 후반 들어 인체에 유익한 각종 기능을 갖춘 건강기능성 바닥재가 개발되면서 현재 이들 제품이 주거용 바닥재 시장을 대부분 점유하고 있다.

이는 아파트 등 주택 건설업체간의 분양경쟁으로 고급 건축자재의 사용확대 추세와 주고객인 가정주부들의 가족건강을 최우선시하는 소비패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건강기능성 바닥재란 다층으로 이루어진 바닥재의 한 층에 황토, 천연옥, 은, 맥반석, 참숯, 대나무 숯, 천연향, 방충제 등을 첨가하거나, 재질 및 구조설계 개선으로 건강기능성을 부여한 바닥재를 말하며, 원적외선 방출(황토, 맥반석, 천연옥, 숯 첨가), 항균(은 도포), 전자파 차폐(은이나 특수세라믹 첨가), 정전기 방지(숯이나 전도성 물질 첨가), 향기효과(천연향 첨가), 인체충격 최소화 및 소음흡수 기능 등을 나타낸다.

■ 기술개발 동향

90년대 초반까지는 단순한 형태의 비닐 장판지가 대부분이다. 90년대 중반에 입체효과, 천연원목이나 천연석의 무늬나 질감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심미적인 바닥재가 개발됐다.

90년대 후반부터 심미적인 바닥재에 건강기능성까지 부여한 바닥재가 개발됐다.

기술개요 / 출원인	제 품 명	첨가성분	효 과
LG화학	깔끄미 황토방, 깔끄미 우드륨, LG 조은세상	천연황토, 참숯, 은	원적외선(천연황토, 참숯), 습도조절(참숯), 항균(은), 전자파차폐(은)
금강고려화학	옥장판, 은하수, 참으뜸이, 테마여행	천연옥 분말, 은, 맥반석, 특수세라믹	원적외선(천연옥분말, 맥반석), 항균(은), 전자파차폐(특수세라믹)
한화종합화학	참숯나라파트너, 오죽헌프라임, 황토펫트	참숯, 대나무 숯, 황토, 옥	원적외선(황토, 옥, 참숯, 대나무숯), 습도조절(참숯, 대나무숯)
기 타 법 인	특허출원 중이거나 개발중인 기술		라듐장판지, 전도성 장판지, 연옥성분 첨가 장판지, 전자파 차단 장판지
개 인	특허출원 중이거나 개발중인 기술		칠보석 첨가 바닥재, 정전기 방지 바닥재, 천연향 발산 바닥재, 흙첨가 바닥재, 천연옥 첨가 바닥재, 게르마늄 첨가 바닥재
비 고	*LG화학, 금강고려화학, 한화종합화학의 향후개발계획 : 인체충격 최소화 바닥재, 피로경감 바닥재, 소음흡수 바닥재, 유해물질 최소화 바닥재		

표1. 주요 출원인별 건강기능성 바닥재 개발동향

■ 특허출원동향

• 주거용 바닥재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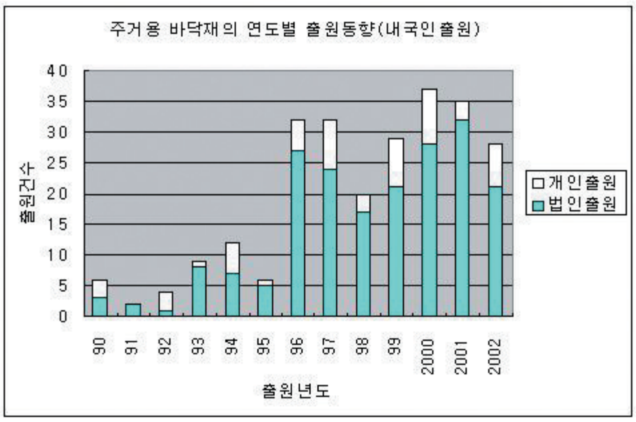
– 출원년도별: 90년 이후 총 255건이 출원되었으며, 96년부터 출원이 급증

– 출원인별: 법인출원이 주를 이루며, 이중 주요 3사(LG화학, 금강고려화학, 한화종합화학)의 출원비중이 85%에 달함.
외국인의 출원건수는 미미함 [표2 참조]

출원인 / 출원년도	내국인		외 국 인	전 체
	법 인	개 인		
1990	3 (2)	3	0	6
1991	0 (0)	2	0	2
1992	1 (1)	3	0	4
1993	8 (8)	1	0	9
1994	7 (7)	5	1	13
1995	5 (5)	1	0	6
1996	27 (21)	5	1	33
1997	25 (24)	8	0	33
1998	17 (17)	3	0	20
1999	21 (19)	8		29
2000	28 (21)	9	0	37
2001	32 (27)	3	0	35
2002	21 (14)	7	0	28

표 2

* ( )는 주요 3사(LG화학, 금강고려화학, 한화종합화학)의 출원건수임



■ 건강기능성 바닥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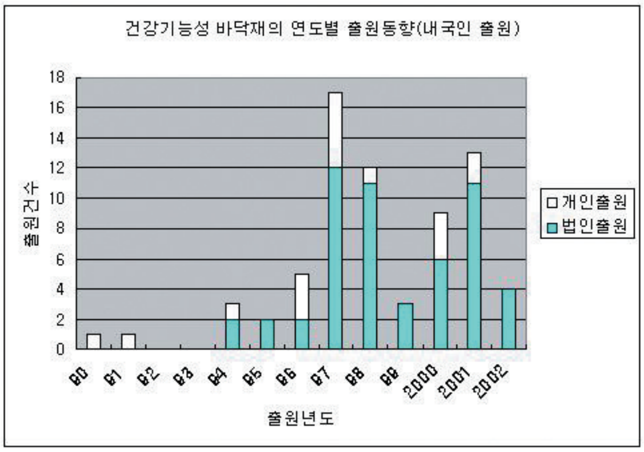
– 출원년도별: 90년 이후 총 70건이 출원되었으며, 97년부터 출원이 급증

– 출원인별: 주거용 바닥재 전체 출원동향과 마찬가지로, 법인출원이 주를 이루며, 이중 주요 3사의 출원비중이 90%에 달함.
외국인 출원건수는 전무함 [표3 참조]

출원년도 \ 출원인	내국인		외국인	전 체
	법 인	개 인		
1990	0 (0)	1	0	1
1991	0 (0)	1	0	1
1992	0 (0)	0	0	0
1993	0 (0)	0	0	0
1994	2 (2)	1	0	3
1995	2 (2)	0	0	2
1996	2 (2)	3	0	5
1997	12 (12)	5	0	17
1998	11 (11)	1	0	12
1999	3 (3)	0	0	3
2000	6 (4)	3	0	9
2001	11 (8)	2	0	13
2002	4 (4)	0	0	4

표 3

* ( )는 주요 3사(LG화학, 금강고려화학, 한화종합화학)의 출원건수임



■ 시장동향

• 현재 국내 주거용 바닥재 시장규모는 연간 4,000억원 정도로 대부분이 건강기능성 바닥재이며, 향후에는 업무용 바닥재 분야에도 건강기능성을 갖춘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향후전망

• 향후에는 인체충격 최소화 기능, 피로경감 기능등 새로운 건강기능을 부여한 바닥재와 아파트 층간 소음기준이나 실내환경기준을 고려하여 소음흡수기능을 갖거나 유해물질 발생을 최소화한 바닥재가 활발히 개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의 : 심사3국 정밀화학심사담당관실 사무관 이수형

*전화 : 042-481-5582

KIPRIS 검색가능 최종 데이터 현황

(2003. 6. 9 현재)

구 분	종 류	기 준 일	정보제공범위
특 허 / 실 용	공개서지	공 개 일	2003. 5. 28
	공고서지	공 고 일	2003. 5. 28
	초 록	공 보 일	2003. 5. 28
	전문이미지	공 보 일	2003. 5. 28
상 표	서지/이미지	방식심사일	2003. 5. 28
특 허	생명공학	출 원 일	1980~2000
구 분	종 류	기 준 일	정보제공범위
의 장	등 록	공 고 일	2003. 5. 28
	공개(조기)	공 개 일	2003. 5. 28
심 판	1심 ~ 3심	청 구 일	2003. 5. 26
4권리	등 록	등 록 일	2003. 5. 28
4권리	중간처리	서류접수일	2003. 6. 5
특 허	KPA	등록·공고	1979.1~2000.10
		특허공개	2000.1~2003.1

한국특허정보원 이전 안내

특허청 산하의 특허기술정보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저희 한국특허정보원이 오는 6월 23일 한국지식재산센터(KIPS)로 이전합니다.

한국특허정보원은 지식재산권 토털 서비스를 지향하는 한국지식재산센터 입주를 계기로 글로벌 특허기술정보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 힘차게 도약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35-980)
- 전화 : (02)3452-8144(代)
- FAX : (02)3453-5951
- 찾아오시는 길 : 2호선 역삼역 4번 출구 전방 직진

Patent 21 2003년 6월호

(통권 제48호)

등록번호 : 서울 라09257
발　　행 : 한국특허정보원
발행 및 편집인 : 민 경 탁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1
편집위원 : 이재정, 강치운, 노성열
기　　획 : 최 승 중
광고문의 : 기획팀 (02-3452-8144)
디 자 인 : IDO (02-3445-9849)
인　　쇄 : 삼원정판사

특허기술정보서비스 : www.kipris.or.kr
선행기술조사서비스 : www.chosa.or.kr

한국특허정보원
Korea Institute of Patent Information
전화 : (02)3452-8144 FAX : (02)3453-5951

한국특허정보원
Korea Institute of Patent Information

발행인 : 한국특허정보원 원장 민경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14-1 발명회관
전화 : (02) 3452-8144
FAX : (02) 3453-5951

특허기술정보서비스 : www.kipris.or.kr
선행기술조사서비스 : www.chosa.or.kr